

불자 세상보기



고유환 동국대 불학학과 교수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극복하고 극적으로 만들어진 8·25합의에 따라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다. 분단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21차례에 불과하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대화가 이뤄질 때 북측이 남측에 주는 선물처럼 간헐적으로 찢고 찢고 이뤄졌다. 이산가족의 고통이 빨라져 이산의 한을 품고 자연수명을 다하는 이산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부모자식, 형제자매의 생사확인도 상봉을 할 수 없는 유일한 지역이 한반도일 것이다. 인도적인 차원을 넘어 천륜(天倫)에 어긋나는 시대착오적인 분단모순을 하루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상봉의 정례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남북합의의 단골메뉴로 합의이행의 분위기를 좋

게 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진행돼 왔다. 이번 상봉행사를 위한 남북 실무접촉에서도 상봉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추후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8·25합의의 첫 단추는 잘 끼었다. 북한이 10월 10일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서 감행할지도 모른다고 했던 인공위성을 가장한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카드를 꺼내지 않고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남북 당국회담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까지 8·25합의는 당국회담을 제외하고 이행국면에 들어섰다. 대한불교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 연맹이 지난 10월 15일 신계사 대응보전에서 '금강산 신계사 낙성 8주년 기념 조국통일기원 남북 불교도 합동법회'를 봉행하고,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남측 대표단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민간교류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는 8·25합의에 따라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국면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 있다는 가설 아래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추가 제재와 압박을 불러올 고강도 도발을 피하고,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이라는 저강도 도발을 통해 충격을 주고 벼랑끝 전술을 펼쳐며 대화국면을 열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서 대외관계를 확장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국면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 카드는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요구를 거부하면서 제재와 압박을 지속할 것에 대비한 국면 전환용 후속카드로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8·25합의 이후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른바 '과속론'을 펴기 시작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직접 나서 남북관계 역사를 새롭게 쓰자고 밝힌 것을 볼 때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진정성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속도조절론'을 펴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이 핵문제와 관련한 진정성 있는 행동 없이 제재와 압박을 피하기 위한 남북관계 대전환 요구라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인다. 8·25합의에서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했지만, 남과 북 모두 최근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8·25합의 이행과 남북관계 복원의 핵심 변수는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북한이 핵보유국의 지위를 보장받으면서 제재를 풀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한다면 관계복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고 북미 평화협정 체결 요구에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북한은 전략적 도발카드를 행동으로 옮기려 할지도 모른다.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의 관건은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공고한 평화체제로 바꿀 우리 정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社說

종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한국 종교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린다. 종교 내부에서도 냉담 신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종교계의 신뢰도는 11.8%로 대기업(12.4%)보다도 낮았다. 수많은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대기업보다 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같은 종교계의 신뢰 수치는 지난해 조사한 신뢰도 25.0%보다 13%가량 하락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3대 종교별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여전히 가톨릭이 '신뢰한다'는 응답률이 39.8%로 가장 높았다. 성직자 신뢰도에서도 신부가 51.3%로 가장 높았다. 스님의 신뢰도는 38.7%로 그 격차가 상당했다. 역설적인 것은 연령과 소득이 낮을수록 종교에 대한 불신이 높았다는 점이다. 실제 20대의 종교 신뢰도는 8.4%, 30대는 6%에

그쳤다. 저소득층은 8.7%만이 종교를 신뢰했고, 중산층은 10.1%, 상위층은 25%로 신뢰도가 높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들이 제도권 종교가 가지는 권력과 영향력에 거부감을 가지고 신뢰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현재 한국 종교가 전반적으로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종교 본연의 임무는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것이다. 전문가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 종교는 '중산층 이상의 종교'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 나가야 한다. 종권 다툼에 열안되어 답배슬 같은 증배슬에 집착해서는 불교의 미래는 없다. 불교는 대형 불사를 위해 신도들의 보수와 회사, 기도 수업을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찰·학회 연대 활성화 기대한다

최근 불교학계가 사찰과 상호 연계를 통해 재정·인력적 한계를 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각사상연구원은 11월 4일 속초 신흥사와 신흥사 설립전에서 '실악불교의 귀원정종'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대각사상연구원은 올해 4월에도 월정사와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주목받기도 했다. 사찰과의 연계를 통해 지평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중앙승가대 대학원도 11월 2일 김포 중앙승가대 교무회의실에서 선운사 불학승가대 학원과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이들 교육기관은 학인 대상 입학금 면제 및 교수 임용 혜택을 비롯해 상호간 학술교류를 위해 연1회 학술세미나 및 특별 교류 강의 시행과 학술간행물 상호 제공 등을 진행한다. 학회 간 연대도 활발하다. 2012년 불교학계 대표단체인 한국불교학회와 불교학연구회가 워크숍을 함께 한데 이어 올해 한국불교학회와 밀교문화연구원의 공동워크숍 등

으로 이어지는 등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이 같은 학계의 연대는 긍정적 요인이 많다. 분석이 높다. 대표적 학회의 회비 납부율이 30%임을 감안하면 학회, 사찰, 문중간의 연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불교계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다. 다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학회의 독립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소위 연대 과정에서 쓰여지는 맞춤형 논문들은 학술적 객관성 훼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찰과 문중들의 불교계 학회들과 연대하는 것은 학회의 재정적 도움과 연구 지평을 넓히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다. 담보되어야 할 부분은 학회가 갖는 정체성을 심본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학 발전은 미래 인재 양성과 불교 대중화의 기틀이다. 미래 불사의 차원에서 사찰·문중과 학회의 연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발언대 지역공동체 포교 활성화

조계종 포교원은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65차 포교 총력 연합회-지역공동체 포교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전문가들의 지역공동체 포교 활성화 방안과 제언을 정리했다. <편집자주>

“공동체 포교 중요성 인식해야”



지역공동체는 지속적으로 변모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지만 그 어떤 경우라도 지역 포교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전국의 여러 사찰에서는 다양한 지역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국의 많은 사찰들은 아직도 지역공동체 포교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의 무관심, 지역 포교역량 부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불교계는 지역공동체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차원에서 포교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만 지속가능한 불교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구본사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포교 방안 모색을 위한 지역 조사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더불어 사찰의 지역 포교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포교는 종단의 포교원, 교구본사, 해당 지역의 단위사찰이 역할 분담을 통해 지원하고 이끌어 줘야만 장기적으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다.

나눔·배려의 종교 리더십 필요



지역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공유경제와 결합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영향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나눔과 배려가 돌보이는 종교기관 리더십이 필요하다. 공간과 재능 콘텐츠 공유를 각각의 방식으로 실행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주체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종교기관이 지역사회 또는 공유경제 내에서 가질 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재설정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사회 문제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개입할 수 있는 공동체적 이슈를 발굴함으로써 지역과 종교기관의 상생 모델이 재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이다. 나눔과 배려, 관심을 통해 발견된 문제의식들과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공유해야 할 사회경제적 가치들을 융합·활용하는 대안 마련이 종교기관의 입장에서 절실함으로 다가가야 할 기본 자세라고 제안하고 싶다.

연기적 포교 모델 고민해야



부처님은 재가자들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라 많은 재화를 획득하라고 가르쳤다. 중생들의 안정된 경제 활동은 건전한 도덕 생활을 유지하고 넓게는 사회질서를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다. 비즈니스 모델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교 전략을 수립해 몇 가지를 제안한다. 도시 사찰과 농촌 사찰이 적극적인 유대 관계를 만들고 공유해야 농촌 포교가 성장할 수 있다. 농촌 불교 신앙공동체가 가진 농업 자원을 도시 사찰과 연계하는 유통채널 구축 또한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다. 사찰음식 특화 전문점 오픈과 마케팅을 지역민과 함께 하고,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사찰음식과 연계하는 모델도 만들 필요가 있다. 사찰 휴양림을 기초로 한 자연치유 명상센터 건립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방법도 가능하다. 불법(佛法)으로 어떠한 괴로움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다는 확신으로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거기서 포교 전략이 지역 자원과 인력, 지역 공동체와 함께 또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기획된다면 연기 지향적 비즈니스 모델 포교 전략이 탄생하리라 기대한다.

Table with 2 column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details about the magazine's mission, contact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Buddhist books. Title: 석지현 스님, 《벽암록》에 이어 《종용록》역주 해설본 출간! (Buddhist scholar Seok Ji-hyun's new book 'Jongyongrok' commentary). Includes book images and promotional text.